

일본은행 7 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8 대 1 동결에도 위원 발언은 인상 속도·폭 논의로 한층 매파적

2026.08.10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일본은행(BOJ)은 지난 6 월 SOO(정책회의 주요 발언 요약)에서 중립금리 수준을 '약 2%'로 위원 차원에서 공개하며 매파적 색채를 뚜렷이 드러낸 바 있다. 이어 4 월과 3 월 회의에서도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동결을 택하면서도 다수 위원이 '망설임 없는 인상', '간격 없는 조정'을 언급하며 긴축 재개 의지를 꾸준히 예고해왔다. 이번 7 월 30~31 일 금융정책결정회의(MPM) SOO 는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회의는 8 대 1 로 정책금리 동결이 결정됐다. 표결 결과만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회의록에 담긴 개별 위원 발언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매파적이다. 여러 위원이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고, 논의의 초점도 "일정한 페이스 유지"에서 "인상 폭을 얼마나 크게 할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한 위원은 정책 목표가 "2% 물가 달성"에서 "물가가 목표를 웃돌아 벗어나는 상황을 막는 것"으로 전환됐다고 규정하며, 지금 인상을 미루는 데 따르는 비용이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6 월 인상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데 1 년에서 1 년 반의 시차가 있어 이번엔 동결이 맞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돼, 표결상 다수 의견의 근거가 됐다. 기저 물가(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소비자물가)가 2%에 근접하면서 이제는 물가가 목표 수준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지(앵커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단계라는 인식도 공유됐다.

이 같은 위원 다수의 발언은 소수의견을 낸 위원 한 명의 반대표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위원회 전반의 긴축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월 회의 대비 톤이 한층 강해진 셈이며, 이는 일본 국채금리, 특히 단기물 금리의 추가 상승과 엔화 강세 압력을 뒷받침하는 재료다. 장기금리 상승이 해외 통화정책 흐름과도 연동돼 있다는 관찰이 언급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일본 주식시장,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밸류에이션에 민감한 종목들은 매파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 조정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 측은 이번 회의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긴밀한 공조, 시장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마모토 지진 대응은 별도 사안으로 언급됐다. 다음 회의에서는 이번에 제기된 "인상 폭 논의로의 전환"이 실제 표결 구도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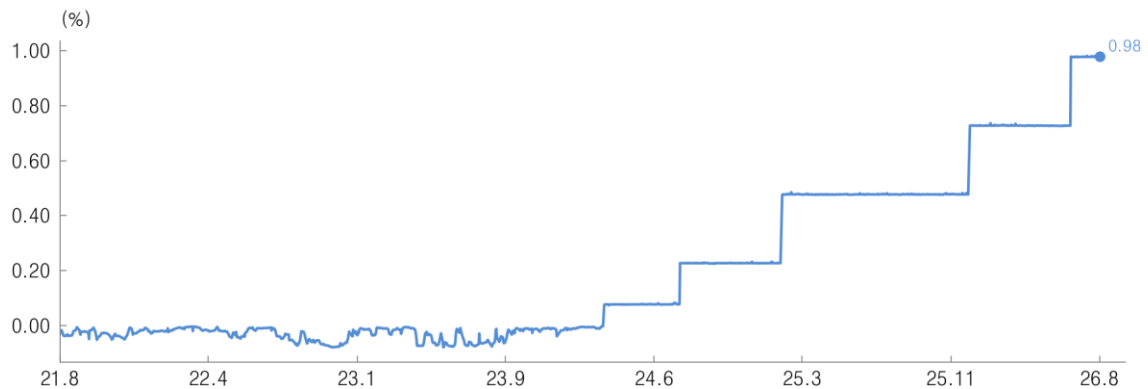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10 (이번)	BOJ 위원회는 8 월 동결 이면에서도 통계보다 노골적인 매파 언어를 구사하여 정책오류 우려와 JGB 커브의 매파 프라이싱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신호를 한층 강화했다.
2026-06-24	BOJ 는 6 월 인상 이후 중립금리 약 2%와 수개월 간격 인상 페이스를 공개하면서 매파 기조를 강화했으며, 2027 년 4 월부터 JGB 매입 축소를 중단하여 QT 경로를 확정했다.
2026-04-28	BOJ 는 4 월 동결 결정 이후에도 6 월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으며, 성장 보호보다는 인플레이 억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명시적으로 설정했다.
2026-03-19	BOJ 는 3 월 동결 결정 이후에도 매파 정책 경로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1970 년대형 스태그플레이션과 엔 약세 2 차 인플레이의 동시 발생 위험을 강조했다.

BOJ 7 월 통화정책회의 주요 판단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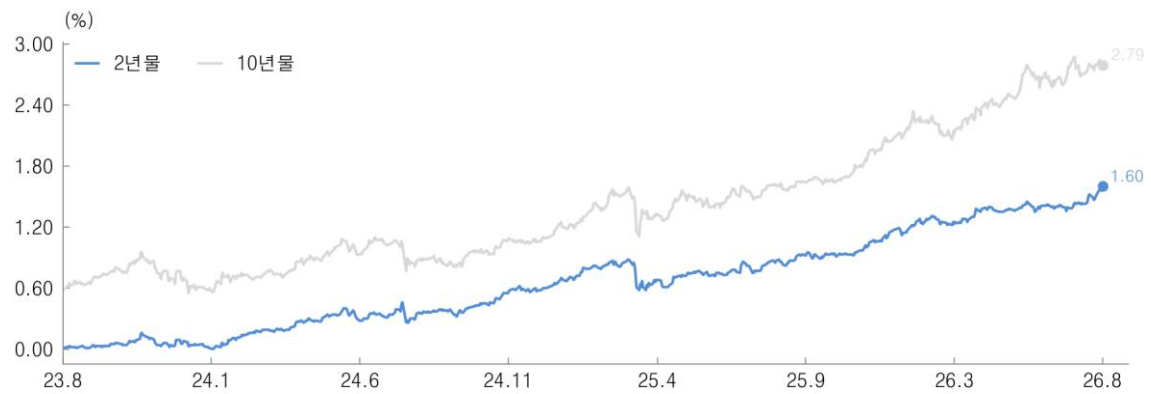
판단 항목	내용	시사점
정책금리 결정	동결(1.0%)	6 월 인상의 경제 영향 파악에 1~1.5 년 시차 고려
위원회 기조	매파 압력 심화(6 월 대비)	다수 위원의 가속 인상·규모 확대 논의
물가 판단 단계	기저 CPI 2% 근접·앵커링 진입	상방 이탈 방지로 정책 초점 전환
인상 페이스 전망	시장 예상보다 가속화 가능	'기다리는 리스크'가 미미하지 않음 강조
정책 프레임 전환	페이스→규모(폭) 중심 논의	차기 회의의 표결 구도 변화의 신호
물가 상방 리스크	우위 평가 지배적	엔저·AI 수요·지정학·유통비용 상승 압력
하방 위험 요소	AI 기업이익 급락 시 주가 조정	유일한 명시적 하방 리스크

일본 무담보콜 익일물 금리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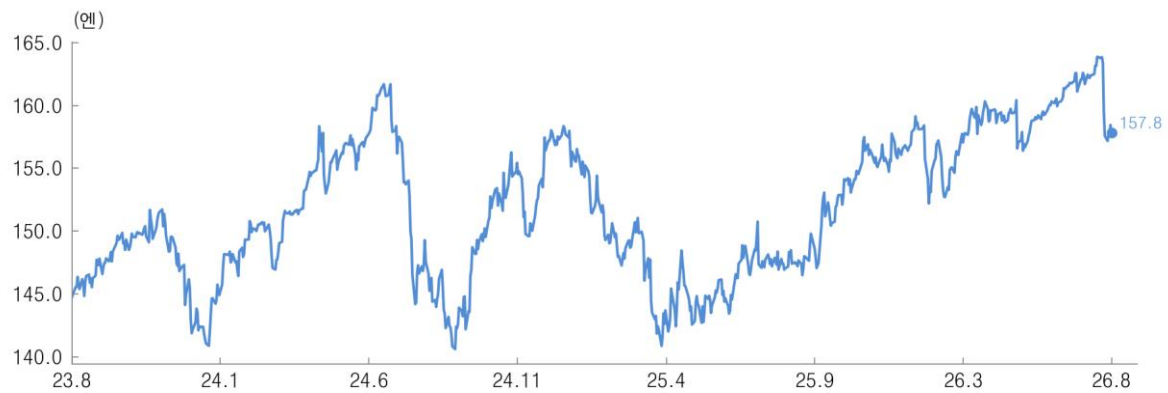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엔/달러 환율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